

「 가나안 이야기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은

!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먼저 참으로 오랜만에 연락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염려해주시는 덕분에 저희들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현재 잘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에서의 안식년 기간은 가족 모두에게 충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소개하며 오랫동안 간직하게 될 소중한 추억들을 남겨둘 수 있었음이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안식년 기간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에서의 2기 사역과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벌써 이스라엘에 온지도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이곳에서의 생활과 사역을 짧게나마 나누길 원합니다.

2기 정착 이야기

한국에서 1년의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느낌은 1년이 아닌 단 몇 주만 자리를 비웠던 것 같은 친숙함과 익숙함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느꼈던 첫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집을 구해서 들어간 곳이 예전에 떠나기 전 살던 곳이라 더욱 생활 전반이 익숙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장 적응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시간 현장에서 살아온 시간과 경험들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생각보다 현장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담희와 단아는 이스라엘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한국이 더 좋고 한국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말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곳 생활 속에서도 흥미를 느끼고 또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 한국을 떠나오기 전 도하를 데리고 미용실에 한번 데리고 간다는 것이..., 떠나기 전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그냥 더벅머리로 이스라엘에 데리고 왔습니다. 해서 제가 이발을 해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싫다고 울더니 어느 순간에 와서는 그냥 얹전하게 있더군요. 어쩌면 아이들도 불가항력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생존을 위해 곧 바로 순응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 부녀 학생 이야기

이스라엘에서의 2기 사역에서도 저의 신분은 현재까지는 학생입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학교 가운데 하나인 바르일란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환경과 학교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수업이 일주일에 한번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학교 가는 길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허락된 기회이니 만큼 주어진 시간 감사함으로 수업에 임하려 합니다.

담희는 일주일에 한번 한인 아이들을 위한 영어 수업이 개설되어 기초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을 홈스쿨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는 담희를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또 어우러지는 것에 담희는 너무 행복해 합니다. 센터 영어 수업에 참석하면서부터 담희는 또래 친구들과처럼 일반 학교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초반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 요압 아저씨 가정과 베두원 마을 이야기

이스라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집을 구하고 차를 사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이 생겨서 차를 구입하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외국인들이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시민 가운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추가된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보증을 선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선뜻 허락해줄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일이기도 무척이나 난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아저씨 딸 마아얀이 기꺼이 보증을 서주겠다고 나서서 감사하게 차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일로 잠시 요압아저씨 가정을 방문하고 또 오랜만에 반가운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힘든 남의 보증 서는 일에 다른 이도 아닌 유대인이 보증을 서 주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람기도 하면서 선뜻 보증을 서주겠다고 나섰던 마아얀과 요압 아저씨 가정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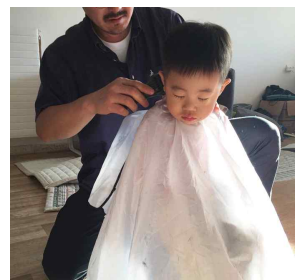
베두원 마을도 참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마을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가 안식년을 나가 있는 사이에 마을 주민 가운데 함마드 형제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함마드의 어머니 알리아 아주머니의 당뇨도 심해져서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얼마지 않아 또 다시 다른 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수술 후 일주일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요즘 베두원 마을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앞으로 2달 뒤에 정착촌 건립을 위해 마을 철거 명령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내려온 상태라 2달 안에 다른 지역으로 단체 이주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몰리게 된 이 상황을 놓고 마을 주민들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오던 날



드디어 이스라엘에 도착



도하의 체념



바르일란 대학교



다시 만난 베두인 아이들

「 기도제목 」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1:21)

1. 이스라엘에서의 생활과 2기 사역에 더욱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2. 요압 아저씨 가정과 야곱(마아안)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3. 베두원 마을 철거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와 대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4. 타마르 프로젝트(베두원 아이들 교육 사업)의 재정비와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분쟁과 다툼이 멈추고 그 땅에 진정한 샬롬(평안)이 찾아오도록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운)

-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
- 외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Rev. JAESUK JUNG

※ 연락처 :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jaesuk96@gmail.com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 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